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 역할 및 어려움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달 이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 역할 및 어려움

권 경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달 이

인 준 서

김달이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2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 역할과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교사는 어떠한 어려움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2세의 영아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여의도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 만 2세반의 하루일과의 참여관찰로 실시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진행 하였으며 연구 참여교사는 1인당 3회씩 개별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관찰은 한 달에 2번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관찰을 통해 현장기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관한 탐색하는 연구로 전사작업, 메모작업, 개방코딩, 심층코딩, 주제의 발견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 개방형 질문지, 참여관찰 등으로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들은 바로 전사하여 상황적 맥락을 유지 하고자 하였으며 메모작업을 통해 다음 자료수집에 도출하는 과정에

서 개념을 범주화하여 개방코딩, 심층코딩 과정을 거쳤고 각 주제의 핵심내용을 개념화 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영아교사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역할은 하루일과 속에서 시간, 공간, 활동에 상관없이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교사들은 영아가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영아들이 하루일과를 보내며 급 간식시간, 옷 입고 벗기, 배변훈련, 놀잇감 정리하기 등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사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영아의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영아들이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시도하거나, 행동하였을 시 바로 칭찬과 격려를 하여 영아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강화하였다.

둘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동료교사와 다른 지도방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영아교사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함께 반을 운영하는 고경력 교사가 저경력 교사에게 자신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의 동일시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며, 동료교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동료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영아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즉,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영아

와 함께 하는 시간만큼은 허용적인 부모가 되며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들의 울기, 소리 지르기, 때리기 등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이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이러한 영아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한 교사의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연구자	6
II. 이론적 배경	9
1. 기본생활습관	9
1) 기본생활습관의 개념과 필요성	9
2) 기본생활습관의 교육내용	11
2. 만 2세 영아의 발달특징	14
1) 신체발달	15
2) 언어발달	16
3) 인지발달	17
4) 사회·정서발달	18
3. 영아교사	19
1) 영아교사의 역할	20
2)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역할 및 지도방법	21
3)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선행연구	23
III. 연구방법	26
1. 연구 참여자	26

2. 연구 절차	34
3. 자료 수집	36
4. 자료 분석	38
IV.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역할 ..40	
1)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	40
2) 영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	43
3)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자	47
2.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 51	
1) 동료교사와의 다른 지도방식	51
2)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	54
3) 영아들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	58
V. 논의 및 결론	63
1. 논의	63
2.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부 록

ABSTRCT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27
<표 2> 연구참여 학급 영아의 일반적 배경	34
<표 3> 연구참여 학급 하루일과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본생활습관이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행동이 습득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여 습관화되는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행위로, 식사, 수면, 배변, 청결, 의복 등과 관련된 자조 기술 또는 생리적, 신체적인 행위의 습관을 말한다(박정옥, 2009). 넓은 의미의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절제, 질서, 예절 등 우리의 전통과 사회구조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몸에 익혀 습관화하는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 1997; 이귀옥·이미리, 2013).

영아기는 신체, 의사소통, 사회성, 정서, 인지발달 등 생애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이며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Mahan, Escott-Stump, 2000).

특히, 한번 형성된 생활습관을 고치는 일은 어려운 일이므로 영유아기에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이인숙, 2001). 기본생활습관 형성은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궁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하는 기본적인 자질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몸에 지니도록 하는 것은 인격형성의 바탕이 되며 인간의 사회화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박옥희, 2000). 더욱이 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은 기본생활습관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행동을 익혀 습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박화윤, 2000).

기본생활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함께 자립심과 독립심의 기초가 되며, 이후

의 성격과 가치관의 기초가 된다는 점(Richard & Light, 1986)에서 기본생활습관교육은 가소성이 풍부한 영아시기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생활습관은 삶 전반에 관련되며 생득적으로 얻어지기보다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김병례, 2002; 이순천, 2012).

과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강조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자녀 양육 및 지도의 실제적 책임이 부모 뿐 아니라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부여되었다(김란희, 2016).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결혼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에 따라 가정 밖의 환경에서 영아 양육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오효연, 2016). 더욱이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어려움은 가중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 양육분담이라는 인식은 교육기관을 통한 자녀양육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송혜진, 2007) 종일반 운영확대는 물론 시간 연장반, 24시 운영, 휴일 보육 서비스,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의 체제가 연중 운영됨으로써(정혜순, 2014) 영유아의 기본교육마저 교육기관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기관은 영유아의 초기 사회화 기관으로 사회의 규범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가정에서 담당하였던 배변, 식습관, 이닦기, 인사하기, 적절하게 말하기 등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까지도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송미영, 2014; 이우정, 2016).

따라서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더욱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영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교사는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이수정, 2016). 즉, 영아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부모의 대리자 또는 보호자로서 영아

에게 따뜻하고 허용적인 자체로 보살피 주어야 한다(노수래, 2011). 또한 영유아교사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McNairy, 1989). 교사들은 영유아에게 최상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련의 총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최기영, 2008). 더불어 영유아의 행동과 발달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2003).

이처럼 영유아교사들은 대리자, 보호자, 교육자, 계획자, 의사결정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교육에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활동 유형을 통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였을 때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구자미(2016)의 연구에 의하면 개사한 동요를 활용한 기본생활습관 교육 활동은 만 2세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소인 예절, 질서, 청결, 절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강미영(2016)의 연구에서 생활 그림책 읽기를 통해 이야기 나누기, 역할놀이, 미술놀이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한 교육활동이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소에서 개인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2014)의 연구에 의하면 만 2세 영아가 지속적인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하여 영아의 기본생활습관형성과 더불어 또래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복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예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만 2세 영아들에게 실시해본

결과 영아의 건강생활, 안전생활, 바른생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아 교사들이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을 다양한 유형과 연계하여 지도 하였을 때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의 통합 교육활동은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내면화 하여 자신이 스스로 행동을 실천하며,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경아(2011)의 연구에 의하면 영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온전하게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교육수행에 있어서 어려움(계영애, 강정원, 2001; 김정주, 노은호, 2006; 정아란, 김영철 2014)을 경험한다.

이처럼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 김란희(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바쁜 하루일과로 인해 지도가 소홀 해진다는 점과 장기간의 지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교육기관의 허용적인 분위기 와 좁은 공간으로 인해 교사가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아영(2014)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반 점심식사 시간 식습관 행동 관찰을 통해 교사의 식습관 지도의 어려움으로는 균형적인 영양의 보충을 위한 어려움과 동시 다발적인 교사의 역할수행으로 어려움이 나타났다. 강경희와 전홍주(2012)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 식사지도에서의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배변훈련 등과 같이 다중적 역할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희(2014)의 연구에서도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규칙과 허용의 경계 짓기, 훈육등과 같은 영아교사의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영유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들은, 영아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원인으로 영아교사의 전문성과 지식 및 경험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본생활습관의 교육이 영아교사와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유아교사와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영아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어려움을 살펴 본 연구 중 영아의 발달연령과 특성을 고려하며 영아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하루일과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하루일과와 관련하여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점심식사, 배변훈련, 낮잠지도와 같이 영아의 하루일과 중 특정한 시간에 중점을 두어 교사의 어려움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강경희, 전홍주, 2012; 노희연, 2008; 이슬기, 2008)가 있었지만, 영아교사가 등원부터 하원까지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교사의 역할과,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연구를 찾기 어렵다.

고복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만 2세 영아는 기본생활습관을 습득하고 형성하는 적당한 시기이며, 서미경(2004)의 연구에서 만 2세 영아는 기초적 도덕성을 형성할 적기라고 보고된 연구결과와 같이 만 2세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는 영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만 2세 영아의 발달특징을 볼 때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며 공동생활을 위한 기초적 사회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사가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며 하루일과에서의 경험하는 역할과,

어려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만 2세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교사의 역할과 나타나는 어려움은 어떠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사의 역할을 안내하며,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 역할 및 어려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의 연구자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경력은 7년차의 교사이다. 연구자는 7년 동안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유아반의 담임보다 영아반의 담임의 경력이 많다. 영아반에서는 만 1~2세의 담임을 맡았으며, 경력이 높아질수록 받을 이 끌어 가는 책임감이 커지면서 영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사와 부모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영아가 기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손 씻기, 인사하기, 골고루 먹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화장실에서 배변하기, 내 물건 챙기기 등은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영아는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생활습관이 형성이 되며 교사는 영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강할 뿐 아니라 영아의 일생동안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자는 만 2세 담임을 맡으면서 매일 같은 하루일과 속에서 다양하게 반응하고 느끼는 영아들과 모든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채소 먹어야 튼튼해져요”, “치카 치카 안하면 OO 입 속에 충치균단들이 와서 이를 새카맣게 만든데요”, “교실에서는 거북이, 개미처럼 천천히 걸어볼까?”라고 이야기 하며 나는 영아들에게 올바르게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사일까?, 아니면 하기 싫은 놀잇감 정리하기, 양치하기를 매일 하라고 이야기 하는 잔소리쟁이 일까? 라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기본생활습관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며 같은 연령을 맡고 있는 동료교사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 강의를 들으며 영유아의 생활지도의 방법과 역할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본생활습관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때로는 만 2세 영아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일과를 보내면서 자기중심성이 강한 만 2세 영아에게 기본생활습관을 내면화 하는 것은 어려웠다. 등원하여 손은 양말을 벗고 있지만 눈으로는 쌓기 놀이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이거 안돼”라고 이야기 하며 결국 벗지 못하고 발을 차면서 교사에게 벗겨 달라고 울면서 이야기 하는 영아, 점심시간에 연근조림이 나왔는데 연근이 먹기 싫어 입속에 넣었다가 바로 책상 위에 뱉으며 채소를 먹고 싶지 않아 하는 행동과 감정을 표현하는 영아도 있었다. 또한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교사도 해야 함께 동시에 지도해주어야 하는 부모들이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해주길 원하고 기대하여 교사로서 힘이 빠지기도 하였다.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만큼은 규칙을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자녀들의 욕구를 받아주고, 해결하여 사랑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다.

반면에 점심시간에 콩나물 반찬을 먹고 나서 “나 콩나물 먹었어”라고 자랑스럽게 교사를 보면서 이야기 하고, 매일 바지에 배변을 보던 영아가 교사에게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 이야기 하며 행동에 변화를 보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들을 통하여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 역할 및 어려움에 대한 호기심으로 본 연구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연구하였다. 향후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사의 역할을 안내하며,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기본생활습관

1) 기본생활습관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생활습관이란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행동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습관화되는 것을 말한다.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은 성인이 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

기본생활습관의 ‘기본’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말하며, ‘기본생활’은 삶에 있어서 인간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근본이 되는 활동을 말한다(강현석, 황윤세, 2004, 재인용; Blackledge & Hunt, 1985). 박정숙(2005)는 ‘습관’이란 어떤 일정한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도 그 환경에서 반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기본생활습관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여 삶을 영위해 가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적 생활 지식, 태도, 기술에 관련한 행동유형’이다(신인숙, 유연옥, 2003).

또한,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1991)은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이어져 내려온 사회적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현재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따라 적응하며 행동 하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다.

영유아기는 발달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정금자, 2001)

이러한 영유아 시기의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가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당연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정신과 기능을 길러준다(정정여, 2010). 더불어 이러한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가 속한 사회와 문화가 가지는 행동양식을 배우는 사회화의 첫걸음이다(신인숙, 유연옥, 2003).

기본생활습관은 출생 이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가소성이 풍부한 영유아기가 지나면 변하지 않으므로 영유아기에 기본생활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여부는 장래의 성격을 결정짓는 기초가 된다(안나영, 2012) 이러한 기본생활습관은 특정시기에 관련되지 않고 개인의 삶 전반에 관련된 개념이며, 생득적으로 얻기보다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신인숙 외, 2003).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인생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본생활습관은 영유아기에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영유아기의 기본생활습관교육이 중요한 이유로 강경아(2006)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기본생활은 한 개인의 습관 중에서 밑바탕으로 되는 습관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습관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습관이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9). 이숙희 외(2002)는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된 영유아는 다른 사람들과 적응이 원만하며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에 봉사하며 능동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기본생활습관은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행복, 자아실현에 영향을 준다(강경아, 2011)

사회적 차원으로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속해 있는 사회의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습관이다(이순천,

2012). 기본생활습관은 개인이 속한 사회는 기본생활습관 속에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모두가 실천해야 하고 계승하며 변화시켜야 하는 가치와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강경아, 2011).

이와 같이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유아기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는 중요한 시기이며 영유아기에 획득해야 할 기본생활정신과 습관들의 체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본적인 인격형성의 바탕이 된다. 또한 영유아기의 내면화 해야 할 기본생활정신과 기본습관들을 바탕으로 영유아 스스로 성장하며 기본적인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며 영유아의 발달에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2) 기본생활습관의 교육내용

기본생활습관은 영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사회규범과 도덕정신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기본생활습관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우(1994)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내용은 영유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 질서, 화합, 사회윤리와 책임과 같은 것으로서 자립심과 자기절제를 기르는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채선(2004)은 교육기관의 하루일과를 직접 관찰하고 유아들이 교육기관의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기본생활 교육을 스스로 하기, 안전하게 지내기, 질서 지키기, 자리 정하기로 규정하였다. 김민정(2007)은 청결, 질서, 예절, 절제로 구분하였으며, 김신영(2009)은 문화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기본생활습관의 교육내용을 질서, 친절, 청결, 생명존중, 정직과 책임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생활습관 교육내용은 고정되어 있기보다 역사적 조건, 전통의 영향, 교육·문화적 분위기, 사회적 상황, 가정의 구조와 환경,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강조되는 내용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학자마다 제시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민정(2007)의 기본생활습관의 교육 내용을 재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결

청결은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가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주변 환경의 청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행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기, 음식을 먹고 난 후 양치하기, 외출 후 손과 발 씻기, 콧물 닦기, 옷차림을 단정하게 정리하기, 세수하기, 머리 손질하기, 물건 제자리에 정리하기, 휴지통에 휴지 버리기, 분리수거하기로 교육내용이 있다.

(2) 질서

질서는 영아들로 하여금 집단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공 규칙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규칙을 지켜야 됨을 이해하여 행동으로 직접 규범을 지키고 주변사람들과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차례 지키기로는 즐서기, 천천히 걸어가기, 실내외에서 놀이기구 이용 시 차례 지키기가 있다. 규칙이나 약속 지키기로는 화장실에서 약속 지키기, 공공장소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놀잇감 던지지 않고 소중

하게 다루기이다. 교통규칙 지키기로는 우측통행하기, 신호 지켜 횡단보도 이용하기, 차가 다니는 곳에서 놀이하지 않기, 차량 이동 시 안전벨트하기의 교육 내용이 있다.

(3) 예절

예절은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이 원활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할 행동의 기준을 의미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이해, 공경, 사랑 행동으로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관계를 맺어 불편하지 않고 마찰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의도적인 학습과정과 성인을 모방하여 이루어진다(김혜경, 2014). 예절은 가정에서의 예절, 단체 생활에서의 예절, 나라에 대한 예절로 구분할 수 있다(구자미, 2016).

가정에서의 예절은 부모님과 웃어른 공경하기, 부모님 도와드리기, 형제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기, 어른들께 높임말과 존댓말 쓰기이다. 또한 단체생활에서의 예절은 친구, 가족, 교사와 인사하기, 식사시간에 예절 지키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생각 존중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놀이하기, 다른 사람 물건 소중히 생각하고 다루기이다. 나라에 대한 예절은 우리나라 이름과 국기, 국화 애국가 알기, 우리나라 대통령 알기 등의 교육내용이 있다.

(4) 절제

절제는 영아가 교육기관과 같은 집단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지켜야할 규칙을 알고 이 규칙을 지켜야 함을 이해하며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며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절제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익혀 행동함으로서 얻어지며, 자신의 긍정적 자아감과 도덕성 발달에 기초가 된다(민선희, 2015). 절제의 교육내용

으로는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기이다.

아껴 쓰기로는 물, 음식, 놀잇감 등을 아껴 쓰기,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며 잃어버리지 않기이다. 물건을 아껴 쓰는 방법 알기로 물건을 소중히 다루기, 바른 사용법 알고 물건 사용하기, 저축하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찾아 쓰기가 있다.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여 표현하기로는 울거나 소리 지르기 것, 갖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 참기, 화내는 것, 인내하기이다.

이와같이 기본생활습관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기본생활습관은 가정뿐만 아니라 하루일과를 보내는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모델링이 제시되어야 하며 영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발달 수준을 고려한 교육 내용으로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만 2세 영아의 발달특징

만 2세는 생후 24 ~ 36개월의 영아로 신체적으로 협응 능력과 대·소근육 발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자기조절력은 미숙한 상태이지만 왕성한 호기심으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탐색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만 2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은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증가와 자아의식의 발달이다. 영아는 상대방의 언어를 주의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며, 듣고 말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이 시기에는 ‘나’에 대한 인식과 자기주장이 늘어나며 자긍심을 표현하며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만 2세 영아에게 고려되어야 할 발달적 특징을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사회·정서발달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발달

만 2세 영아는 이전 시기에 비해 신체발달이 완만해지며 여러 신체적 능력이 발달된다.

영아기 동안에 영아는 놀랍고 빠른 신체성장과 운동발달이 이루어진다(이상순, 2015). 또한 신체적인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조복희, 2006). 혼자 걷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박성연·도연심, 2005).

이러한 이동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이 시기의 만2세 영아는 스스로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발달해간다. 이 시기의 영아의 소근육 발달로 블록 쌓기와 간단한 모양 끼우기 등을 할 수 있다(이주은, 2004).

또한 단추를 끼우거나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시도하며, 가위질을 하며, 수도꼭지 올리고 내리기 등의 소근육 조절이 만 1세에 비해 정교해진다(이영석, 1998).

더불어 대근육의 발달이 활발해지며 신체의 움직임과 활동범위가 증가 하지만 달리기를 할 때 방향 조절이 어렵다(정옥분, 2002). 계단 내려오기의 경우 발을 바꾸어 오르고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며, 손의 움직임이 서툴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이상순, 2005).

표준보육과정(2013)의 만 2세 신체발달의 특징을 정리하면 음악에 맞추어 뛰고 걸을 수 있으며, 세발자전거 타기, 점프하기 등의 다양한 신체운동기술이 생긴다. 5 ~ 7개의 블록을 쌓으며 도움 받아 옷을 입고, 혼자 씻고 양치질을 시도한다.

24개월경이 되면 배변훈련을 하기 위한 충분한 근육 통제력이 생기고 대소변의 의사표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변 훈련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여 배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최미현, 박명화, 박성미, 최양미, 김성신, 2000).

또한 자아의식이 발달하며 영아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욕구와 호기심이 강한 반면, 신체조절능력이 덜 발달되어 영아 혼자서 탐색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며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기는 자율성이 확립하고 성장해가므로 영아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 영아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지도가 중요하다(이기숙, 장영희, 이윤경, 정미라, 심성경, 손순복, 김영아, 2015).

이를 종합하면 만 2세 영아는 신체성장과 운동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자율적인 성향이 발달한다. 또한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함에 따라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이 이루어지며, 영아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언어발달

만 2세 영아는 이전에 비해 더 복잡한 언어구조 문장을 발달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한다.

24개월 이후 영아들은 어휘 확장과 문장구성이 가능해지며 성인과 유사한 형태의 언어체계를 습득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된다(서경혜, 2005). 30개월 이상의 영아들은 복잡한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문장구조를 사용하며 세 단어 이상으로 된 단어조합형식의 말을 사용한다(김주아, 2007).

이와 더불어 어휘 수는 1000개로 증가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이 시기의 영아들은 언어 사용과 손동작이나 다양한 몸동작, 직접적인 행동 즉, 비언어적 행동도 함께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곽금주, 김연수, 2014).

또한 영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기부터 사고와 학습을 의사소통의 언어라는 상징적인 매체를 사용한다(이차숙, 2004).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론하는 상대적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서영숙, 김경혜, 2005).

표준보육과정(2013)의 만 2세 언어발달의 특징을 정리하면 언어발달은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어휘능력이 향상되며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여 말하기를 즐긴다. 또한 영아는 그림책보기를 좋아하며 선호하는 그림책이 있고, 사물과 상황을 보며 질문이 많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구별하며,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만 2세 교사는 영아와 자주 대화함으로써 언어발달과 개념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델링과 상호작용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인지발달

만 2세 영아는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전조작기, 사고로 접어드는 전화기적 발달 특징을 보인다.

만 2세 영아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며 이를 통해 기억하기 시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장영희, 2007). 가장 중요한 인지적 성취는 상징적 사고의 출현으로서 상징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추론을 직접 행위나 경험과 분리하여 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시기부터는 신체행위로 인한 것 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징을 활용하여 사물과 사건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한은숙, 2003). 이에 따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떠올릴 수 있으며 되며 이 능력으로 인하여 ‘지금과 여기’

를 초월하여 사고 할 수 있게 된다(정옥분, 2002). 또한 이러한 능력은 언어의 확장과 상상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더욱 발달하며, 만 2세 후반에 이르면 실제적인 사물의 지원 없이도 대상물이나 사건을 가장 할 수 있다(송혜진, 2007).

만 2세 시기에는 사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색의 명칭, 신체 특징을 알며 사물을 분류하거나 집합하는 등의 범주화 능력이 생긴다(곽금주 외, 2014).

표준보육과정 (2013)의 만 2세 인지발달의 특징을 정리하면 1과 2를 구분하며 간단한 모양을 분류하며,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만 2세 영아는 상징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며 인지적 능력을 보인다. 이로 인해 표상이 가능해지며 논리적 사고의 전이가 나타나며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한다. 또한 교사는 영아의 자기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영아에게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아직 지각에 의해 조절되며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관점과 다른 타인의 관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4) 사회·정서발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만 2세가 되면 성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정서가 형성되어 기쁨, 슬픔, 공포, 분노 기본적인 정서가 다양해지며 구체적인 수치심, 놀람, 죄책감, 질투심등 복합적인 정서가 나타난다(조순옥, 이경화, 배인자, 이정숙, 김정원, 민혜영, 2002).

즉, 화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타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독립심이 증가하고 부정과 반항을 표시한다(이지은, 1997).

더불어 영아는 자신의 요구를 도와주는 존재로 타인을 인식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최미현 외, 2000) 또한 이 시기 영아의 정서 상태는 일관성이 없고, 또래와 잘 놀다가도 싸우며, 화해하며, 웃는 등 잦은 정서 변화를 보인다(박세진, 2012).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고 강하게 표현하며, 아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이거 내 거야' 등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말을 한다(이명조, 2005).

또한 점차 자신감이나 확신이 강해져서 으스대거나 뽀내는 경우가 많아지며 참거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며 기질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더욱 분명해져서 성장하는 동안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도 미치게 된다(조성연 외, 2007).

만 2세 후반이 되면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입 현상이 두드러진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란, 2004). 즉,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서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나타난다.

표준보육과정 (2013)의 만 2세 사회·정서발달의 특징을 정리하면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많이 노출되고 때를 잘 쓰며, 폭발적으로 울고 양육자에게 강한 애정표시를 한다. 방해받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하며, 낯선 사람을 보면 수줍음 감정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는 사회적 관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차 또래로 확대되며, 자신의 자아를 바탕으로 긍정적 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하며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발달해간다.

3. 영아교사

1) 영아교사의 역할

어린이집에서 하루 일과동안 영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영아교사이다. 영아교사는 영아가 하루일과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하여 즐거움을 경험하며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별적인 도움을 준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를 영아교사라 하며, 영아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다(박나래, 2015).

영아교사는 영아들의 다양성 및 개인차를 인정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신이희, 2011). 최석란(2007)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교사의 역할은 영아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역할,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 영아의 발달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다. 영아교사는 단순한 보호와 같은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영아의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신호를 잘 이해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서로 간의 신뢰감을 쌓고, 영아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주어야 한다(이소연, 2015). 또한 영아교사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활동과 경험이 무엇인지 교사가 인식하며 이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이영미, 2007).

Katz는 영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교사의 역할이 다양하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양옥승, 1999 재인용). 또한 영아교사의 역할은 영아는 유아와 발달적 특징이 상이하며, 다른 연령 교육보다 어려움으로 영아교사는 영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을 이끌어 도와주며 포용적이고 온정적인 태도와 교사로서의 전문가적 행동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이명순 외, 2010).

조성연 외(2007)의 영아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교사는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둘째, 영아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하루일과를 계획하며 이러한 계획에 맞추기보다 영아 개인의 발달 속도와 기질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보육을 한다.

셋째, 영아교사는 영아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과 같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구성을 하며, 영아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영아교사는 영아의 부모와 원활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일관되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영아의 발달을 돕는다.

이처럼 영아교사의 역할은 보호자 및 양육자, 연구자, 중재자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영아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영아를 보살피는 자녀양육의 대행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역할 및 지도방법

기본생활습관은 성장과 발달속도가 급격한 영유아 시기에 교사의 다양한 역할과 지도방법으로 형성된다.

강경아(2011)은 기본생활습관 교육 시 교사는 시범자, 설명자, 토의자, 격려자, 지도 및 평가와 부모교육자의 역할을 하며, 박정례(2000)는 기본생활습관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도를 통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영아교사의 전문적인 역할은 교육기관에서 영아의 하루일과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과 영아의 상호작용은 중요하다.

표준보육과정(2013)에서 어린이집 하루일과에 따른 영아교사의 역할과 지도

방법을 재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부모와 함께 등원하는 영아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영아수첩이나 부모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영아의 건강상태 및 수유와 기저귀 같이 등의 시간을 체크하여 보육활동 시 참고한다.

둘째, 실내 자유놀이활동 시간에는 영아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하여 활동을 제안하거나 반응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유선택 활동 시간 중에도 영아의 생리적인 요구와 리듬을 파악하여 배려한다.

셋째, 실외놀이 시간에는 영아들의 변화와 생활의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 속에서 적극적인 대근육 활동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외놀이터의 위험요소가 없도록 점검하여 영아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실외놀이 시 영아들의 일상생활 도움 받아 걸옷 입어보기, 내 신발 찾아보기 등 활동을 진행한다.

넷째, 간식 및 식사시간은 영아의 건강과 영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스스로 먹기, 손 씻기 등 영아가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배변훈련의 시간은 영아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며, 두려움 없이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입도록 부모와 사전에 요청하고, 배변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아에게 칭찬해 주며, 교사와 영아가 함께 손 씻기 활동을 한다.

여섯째, 낮잠자기시간은 영아의 신체적인 피로를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며, 낮잠을 자고 일어날 때는 기분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영아가 깨어나면 활동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침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한다.

일곱째, 귀가지도 시간은 교사와 부모 간에 영아의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며, 일일보고서를 통하여 영아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알려

준다.

이와 같이 영아교사는 등원부터 귀가 시 까지 영아교사들은 하루일과 속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역할을 하며, 이는 영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3)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선행연구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을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도방법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가 보고 되었다.

영아교사는 기본생활습관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한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의 효과를 밝힌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우정(2016)은 만 2세 영아들과 그림책에 나오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바른 실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반복적인 생활 그림책 읽기의 교수방법이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의 예절, 질서, 청결, 절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강미영(2016)의 생활그림책 읽기를 통한 만 2세반의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과정의 연구에서는 영아들이 그림책을 읽은 후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 행동 실천하고 책속의 주인공을 모방하며 놀이로 표상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책읽기 습관과 기본생활습관의 예절, 질서, 청결, 절제에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고복희(2008)은 영아의 예절교육의 내면화를 통하여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여 만 2세 영아의 건강생활, 안전생활, 바른생활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어 영아의 기본생활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구자미(2016)는 만 2세 영아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 관련내용으로 개사한

노래 부르기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소인 예절, 질서, 청결, 절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혜경(2014)은 텃밭 가꾸기 활동의 흙을 일구고, 물을 주어 싹을 튀우고,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의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하여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행동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교사주입식 내용전달이나 엄격한 반복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영아의 흥미를 이끌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영아가 자율적으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생활습관의 지도하며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고경옥(2015)은 영아 배변학습 지도과정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역할의 의미를 목적으로 만 1세반의 영아와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결과 영아교사는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민감하고 신속한 반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보고하였다.

박아영(2014)는 영아반 교사들의 식습관 지도 행동 변화를 위한 실험연구로 영아반 점심식사 시간 식습관 행동 관찰을 통해 드러난 식습관 지도의 어려움과 영아에게 적용한 효율적인 식습관 지도의 방법을 통해 실험연구과정 속에서 교사의 변화를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교사의 인내심과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추고 효율적인 식습관 지도방법을 찾으려는 교사의 반성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영아교사들은 영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연계하여 놀이를 통하여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과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영아교사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실제적인 역할과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11곳의 어린이집에서 만 2세를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1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자와 이미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만 2세 영아교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연구자가 현재 근무하는 어린이집과 근무했었던 어린이집의 영아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로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 동의서는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본명대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

	연구참여자	연령	교사경력	영아반경력	최종학력	전공
1	정교사	36세	10년	4년	대학교졸	아동복지
2	하교사	32세	4년	4년	대학교졸	사회복지
3	유교사	35세	4년	3년	대학교졸	유아교육
4	이교사	27세	3년	3년	대학교졸	보육학
5	여교사	27세	3년	2년	대학교졸	아동가족학
6	향교사	27세	3년	3년	대학교졸	보육학
7	송교사	28세	5년	2년	대학교졸	유아교육
8	나교사	28세	4년	3년	대학교졸	아동학과
9	은교사	28세	5년	4년	대학원졸	유아교육
10	지교사	30세	7년	4년	대학교졸	아동복지
11	고교사	29세	4년	2년	대학교졸	아동학과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만 2세 담임교사들이며 연구참여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교사

정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주임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아반 4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정교사는 아동복지를 전공하였고,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취업하여 처음에는 유아반을 주로 담당하였지만 대학원 진학 후, 메이트 교사가 있는 영아반의 담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교사는 영아반의 담

임을 맡기 시작하면서 영아기의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만 2세 영아들은 같은 연령이지만 신체적 발달은 개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영아의 신체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한다고 하였다.

2) 하교사

하교사는 경력 4년차의 교사이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교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사회복지사로 2년 동안 복지관에서 영유아에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이 때 영유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게 여겨져 보육교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교사는 영아반 담임으로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만 1세, 2세의 기본생활습관지도에는 자신이 있지만,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부모들의 특성상 가정과 연계가 어렵다고 가정연계 부분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교사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영아들에게 교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며 지도한다고 하였다.

3) 유교사

유교사는 35세로 경력 4년차의 교사이다. 대학교에서 비서학을 전공하여 일반회사에서 비서의 일을 하다가 유아교육의 매력을 느껴 직장에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을 전공 후 늦게 어린이집 교사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교사는 늦게 시작한 만큼 보육교사로서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기본생활습관지도 시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하였다.

4) 이교사

이교사는 경력 3년차로 초임교사 생활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만 2세 연령만 연속해서 3년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초임교사 시절 메이트 경력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도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지금은 초임교사와 메이트가 되어 반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였다. 이교사는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보일 때 교사로서 성취감과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5) 여교사

여교사는 경력 3년차로 만 2세 담임을 2년 동안 하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교에서 졸업 후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 여교사는 기본생활습관을 지도 시 교사와 영아의 비율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메이트 교사와 일치된 기본생활습관 교육방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6) 향교사

향교사는 경력 3년차의 교사로 메이트 교사 없이 혼자서 만 2세반 담임을 맡고 있다. 향교사는 대학교 시절 유아반에서의 실습과 영아반 봉사활동을 통하여 확연하게 드러나는 영아들의 발달모습을 보고 영아반 교사로 지원하여 현재까지도 영아반 담임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향교사는 만 2세반을 혼자 이끌어 가면서 교사로서 많은 성취감을 느끼지만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영아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표현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7) 송교사

송교사는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당시 2세반 담임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송교사는 영아들에게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 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만 2세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대신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 나교사

나교사는 경력 4년차로 초임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교사는 영아기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고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교사는 유아기와 달리 만 2세 영아는 자립심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칭찬을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지도 한다고 하였다.

9) 은교사

은교사의 교사경력은 5년이며 그 중 4년 동안 만 2세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은교사는 교사의 역할은 다양한데, 특히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영아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은교사는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통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교사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10) 지교사

지교사는 7년차 교사로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교사는 유아반의 담임교사 경력이 3년 만 2세 담임교사 경

력이 4년이라고 하였다. 영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면서 유아반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사의 역할과 영아반의 담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사의 역할이 다를 것을 이야기 하였다. 지교사는 만 2세 영아들에게 칭찬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형성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아들의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교사가 주는 도움이 감소할 때 교사로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11) 고교사

고교사는 3년차 교사로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보육교사의 길을 걷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교사로서 1년 휴식기를 갖다가 현재 새로운 원에서 만 2세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교사는 만2세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만 2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습관과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참여관찰 연구 참여 학급

본 연구는 만 2세 학급의 하루일과를 관찰하고 그 속에서 교사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관찰해 보고자 하며, 참여관찰을 통하여 얻은 기록은 반복하여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하였다.

참여하는 학급은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초롱 직장어린이집의 앞세반이다. 초롱 직장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132명의 정원이며 0세반 1학급, 1세반 1학급, 2세반 2학급, 3세반 2학급, 4세반 2학급, 5세반 1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학급수는 9학급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원장님을 비롯하여 각반 담임교사들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급은 본 연구자가 연구하는 만 2세 잎새반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담임교사 2명이다. 초롱어린이집의 만 2세 영아반의 담임교사는 2명으로 김교사와 고교사이다. 김교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력 6년차 교사이며 보육교사 1급 정교사로 경력 6년이다. 만 1세, 2세를 담임한 경험이 있고 만 2세 담임경력은 3년이다. 김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교사의 길을 선택했고, 만 2세의 발달특성과 각각의 영아들의 기질과 성격을 안다.

고교사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 4년차 교사이다. 2년 동안 유아반의 담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영아반 경력 2년이다. 영아반에서의 경력이 다소 적어 김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 등의 모델링을 삼고 있으며 유아들과 달리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영아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본생활습관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슬반은 본 연구자가 만 2세 영아들의 하루일과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연구문제에 대해 고교사의 기본생활습관의 지도에 관한 관찰과 대화,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의 관찰을 비교적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연구 참여 학급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하는 김교사는 참여 관찰자의 역할을 하였고, 참여관찰의 날은 고교사가 수업을 지도하는 날의 지도방법만 관찰하였다.

연구 참여 학급에는 14명의 영아가 생활하며 남아 5명, 여아 9명이다. 모든 영아들의 부모는 K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잎새반 교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정리하고, 1층 복도 가장 끝 쪽에 위치해 있다. 교실 앞에 영아들의 개인 사물함이 있어 등원 시 부모님과 함께 가방, 개인소지품을 정리한 후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교실로 등원한다.

일새반은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실 출입문 쪽에 정수기와 컵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다. 실내의 교재교구들의 영아들의 신장과 발달정도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 벽면에 칫솔 소독기가 있고, 화장실은 옆반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화장실은 세면대 2개, 남자소변기 1개, 여자소변기 2개로 구성되어 있고, 핸드타올, 물비누, 거울, 휴지통, 휴지걸이, 휴지가 비치되어 있다. 일새반의 하루일과는 8시 30분부터 이루어지며 자유놀이를 한 뒤, 손 씻기가 이루어진다.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식당에서 오전간식을 먹고 교실로 이동하여 화장실에서 개인 양치컵으로 물양치를 한다. 이후 자유놀이 후 개인소지품을 착용 후 어린이집 주변 운동장, 기념관, 동산, 실외놀이터 등 산책이 이루어진다. 산책을 마친 뒤 화장실에 다녀온 뒤 2층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이후 교사의 지도하에 양치를 마친 뒤 자유놀이가 이루어진 후 개인 이불과 매트를 사용하여 낮잠 및 휴식이 이루어진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 식당에서 간식을 먹고, 교실에서 자유놀이가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 하원을 한다.

일새반의 보육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다. 일새반의 영아들은 대부분 18시정도에 하원을 한다. 18시 30분부터는 만 0세 부터 만 5세 까지 야간통합보육이 이루어진다.

연구참여 학급 영아현황은 표 2와 같으며 연구참여 학급 하루일과는 표3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들의 부모들에게 사전에 연구 목적에 대해 안내하고 이에 대한 연구참여 동의서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연구참여 학급과 교사 및 영아의 이름은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가명을 사용한다.

<표 2> 연구참여 학급 영아의 일반적 배경

학급수(만 2세)	평균월령	성비율	기관에 머무는 시간
1	30개월	남아 - 5명 여아 - 9명	8시간 ~ 10시간

<표 3> 연구참여 학급 하루일과

시간	활동
08 : 30 ~ 09 : 30	등원 및 자유놀이
09 : 30 ~ 09 : 50	손 씻기 및 오전간식
09 : 50 ~ 10 : 40	실내자유놀이
10 : 40 ~ 10 : 5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0 : 50 ~ 11 : 30	실외 놀이 (산책)
11 : 30 ~ 11 : 40	손씻기 및 화장실 다녀오기
11 : 40 ~ 12 : 30	점심식사
12 : 30 ~ 13 : 00	양치 및 낮잠 준비
13 : 00 ~ 15 : 00	낮잠 및 휴식
15 : 00 ~ 15 : 30	자유놀이
15 : 30 ~ 16 : 00	오후간식
16 : 00 ~ 18 : 20	실내자유놀이
18 : 20 ~ 18 : 30	귀가지도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와 이미 라포 형성이 되어있는 교사 2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면담을 통해 질문의 내용 및 방법,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여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학급 참여관찰을 위해 연구 목적과 내용, 절차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하여 고교사의 수업주인 날을 선정하여 예비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관찰을 통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하고, 관찰한 내용을 현장에서 빠르게 메모하는 훈련을 하고 연구자가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을 영아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9까지 총 10명의 교사와 각 3회씩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저널로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퇴근 이후 연구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면담시간은 5분-10분 정도 예비시간을 갖고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내용은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참여관찰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9일 까지 한 달에 2회씩 총 6회로 하루일과를 관찰이 이루어졌다.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하루일과의 모든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30분부터 18시 30까지로 관찰하였고, 현장메모, 관찰일지로 관찰내용은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수집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9까지 10명의 교사와 각 3회씩 총 30회의 1:1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을 1회에 30~60분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는 가까운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심층면담 시 연구 참여자와의 자연스러운 면담을 위해 면담시작 전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 영아들과의 일상생활에서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포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방식을 사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요청하는 대부분의 질문을 알지만 답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이용하며 이 기법은 연구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유용할 것이다. 반면 동시에 개념에 반응하고 묘사하도록 대상자에게 자유를 준다(김귀분 외, 2005). 반구조화 면담을 위한 질문지는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면담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한 후 면담이 진행될수록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1차면담에서는 교사의 배경, 학급정보,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2차면담에서는 연구자가 1차면담시 궁금한 사항들의 질문과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사들의 역할과 교수경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3차면담에서는 교사들이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을 질문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하면서 교사의 경험과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 시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작성 후 동의하에 녹음, 기록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녹음자료는 그대로 전사하여 자료화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메모하였다가 다음 면담 시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2) 연구자의 저널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심층면담을 실시 한 후 면담 시 분위기와 상황, 연구자의 느낌, 면담 시 어려움과 문제점 등 자료화 되지 않은 면담의 내용들을 저널에 기록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는 만 2세 영아교사로 기본생활습관지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널 쓰기를 통하여 연구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데 활용되었다. 연구자의 저널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후 한 달에 2번 작성이 이루어졌다. 저널의 내용으로는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생각, 요구하고 싶은 점, 현장 관찰 후 이루어진 특별한 일이나 느낌, 관찰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이 이루어졌다. 저널의 분량 및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하였고, 저널의 분량은 A4용지 기준으로 10장 분량이다.

3)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9일 까지 한달의 2회씩 총 6회의 관찰이 이루어졌다. 관찰시간으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 10시간씩(6회: 총 60시간) 하루일과를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일세반의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참여 관찰자로서 고교사가 하

루일과를 계획하고 수업주인 날의 하루일과를 전반적으로 관찰이 이루어졌다.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교사의 지도방법은 어느 상황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하루일과의 모든 시간이 관찰되며 의미 있는 관찰 되었을 시 현장에서 수첩에 작성하였다.

고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는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바른생활부분으로 옷 입고 벗기, 자기물건 정리하기, 음식 골고루 먹기, 놀잇감 안전하게 사용하기, 차례 기다리기, 인사하기, 휴지통에 휴지 버리기, 나의 몸 깨끗이 하기, 화장실 사용 방법, 대·소변가리기 등 만 2세 영아들이 하루일과 중 자연스러운 관찰을 통해 현장기록이 이루어졌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관찰일지, 교육일지 등의 서면적 배경 서류를 수집하였고 부모나 교사가 보낸 스마트 알림장도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되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얻은 기록은 반복하여 검토한 후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개별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되도록 수집한 후 바로 전사하여 면담의 느낌과 상황적 맥락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사내용과 연구자의 저널에 기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심층면담 전사 시 내용분석 중 명확하지 않거나 애용이 미비한 경우, 또한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경우 필요에 따라 e-mail과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영아교사의 역할과 어려움에 관한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각각의 범주에 해

당하는 내용들을 1차 분류 후 각각의 사례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반복하여 읽고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하위 범주로 계속 나누면서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 되었다. 연구자는 초기 범주화 과정에서 연구문제 따라 상위 범주와 하위범주는 구성하였다. 그러나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12개의 소그룹 하위개념이 나타났다. 이후 하위개념들을 비슷한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6개의 상위개념으로 범주화 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쳐 검증을 실시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질적 연구를 경험한 유아교육 전문가와 검토 받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내용을 더욱 객관화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신뢰성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의 역할은 어떠한가 하며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역할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실제적 역할은 하루일과를 진행하면서 영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 영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 칭찬과 격려를 통한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자로 분류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

교사들은 영아들에게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의 역할을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시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직접적인 순서에 맞춰 교육한다고 하였으며, 교사가 직접 행동을 보여주는 가르침의 시범자의 모습을 통해 영아들은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음...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코를 풀고 휴지를 버리는 상황에서 유아 같은 경우 “문 옆에 휴지통 있으니

간 버릴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휴지를 들고 있거나, 그냥 휴지통을 찾아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지통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교사가 직접 가서 위치를 알려준 뒤 영아가 스스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유교사 면담, 2015. 12. 9)

하루일과를 영아들과 지내면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무언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 신발을 신어야 하는 상황 등 직접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할 때는 교사가 옆에서 영아가 취해야 할 행동을 먼저 보여줘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사가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먼저 시범을 보일 때 영아가 해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교사 면담, 2016. 1. 8)

위의 사례와 같이 교사는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영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휴지 버리기, 손 씻기, 신발 신기 등의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교사의 역할은 언어로 이야기 하여 지도하는 것보다는 영아들이 교사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신교사와 정교사가 기본생활습관 지도시의 역할을 직접 가르침을 보이며 영아들에게 지도하는 사례이다.

양말을 신고 벗을 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양말을 신어 달라고 이야기 하며, 먼저 해 주기보다는 제가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양말의 입구를 잡고 “자 봐봐 이렇게 잡은 다음 쪽 늘려, 그리고 발을 쪽 넣은 뒤 두 손으로 양말을 쪽 당기면 양말이 신어 졌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벗어서 영아 옆에서 다시 같이

순서에 맞춰 신어요.

(신교사 면담, 2015. 11. 20)

손 씻기를 할 때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에 손을 대고 가만히 있거나, 물이 흘러가는 곳을 손으로 탕탕탕 치며 물장구 놀이를 즐겨워해요. 그럴 때 저는 “선생님이 물놀이도 하고, 거품놀이를 해볼게 먼저 수도꼭지를 올리고 손에 물을 묻혀, 그리고 다시 물을 잠그고 거품기에 한번 꾸욱~ 눌러 오른손, 왼손 쓰싹쓰싹한 하고 다음에 물로 손을 씻고, 핸드타월로 닦으면 깨끗한 손씻기 끝”이라고 먼저 보여주며 지도하고 있어요.

(정교사 면담, 2016. 1. 11)

교사들은 하루일과 속에서 시간과 활동에 상관없이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즉, 양말신기, 손 씻기, 신발 신기할 때 어려워하는 영아에게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역할을 하였다. 시범을 보일 때는 기본생활습관의 내용을 순서와 방향에 맞추어 보여주며,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교사들은 인식하였다.

다음은 고교사가 나현이에게 인사하기를 통해 시범을 보이는 역할의 사례이다.

엄마와 하원하기 위해 문 앞에 교사와 나현모, 나현이가 문 앞에서 있다.

고교사: (웃으면서 두 손을 배에 대며) 안녕히 가세요.

나현: (웃으면서)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교사: 나현이가 선생님이 반가워서 안녕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해보았는데 선생님처럼 다시 인사해볼까?

나현: (두손을 배에 모으며)안녕히 계세요.

(관찰, 2015. 12. 15)

저녁 하원시간이 되어 나현이가 엄마와 만난 뒤 문 앞에서 교사와 하원

인사를 한다. 교사가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자 나현이는 장난을 치며 인사를 한다. 고교사가 다시 인사하기를 권유하자 교사가 인사를 하였던 모습을 보고 인사를 했다. 즉, 고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교사가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이 보이고 영아가 교사의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만 2세 영아반 교사들은 행동을 통해 직접적인 가르침이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영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

교사들은 영아들이 하루일과를 지내는 동안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영아들의 행동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자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의 역할은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대신하였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속에서 보여졌다.

즉, 교사들은 급·간식시간, 옷 입고 벗기, 놀잇감 정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의 상황 속에서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하루일과를 보내는데 옷이 두껍거나, 여자아이들은 원피스, 스타킹, 블라우스를 예쁘게 입고 오거나 남자아이들은 고무줄 바지를 입고 오면 좋는데 단추등이 있는 바지를 입고 올 때가 많아요. 그럴때는 하루일과를 지낼 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지 온 여벌 옷으로 갈아입어요. 아이들이 양말은 스스로 신기를 하거나 도움을 주면 신을 수 있는

데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것은 혼자 하지 못해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 벗겨주고, 갈아입혀 줘요

(신교사 면담, 2015. 12. 3)

점심시간에 한 영아가 그만 먹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해요. 음식을 다 먹었으면 식판에 잔반이 남지 않아 정리하는 곳에 영아가 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음식이 남았을 경우 잔반의 음식을 한꺼번에 모으고, 잔반통에 버리는 것은 제가 해줘야 해요. 영아 혼자 하게 하면 아직 정해진 곳에 버리는 것의 조절능력이 미숙하여 버리다가 주변에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음식들을 치우려고 휴지로 닦으면 바닥에 문지르게 되고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하교사 면담, 2015. 12. 6)

신 교사와 하 교사는 영아들의 신체적 조절능력과, 소근육의 발달이 미숙하여 교사가 영아들의 행동을 직접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 교사는 급·간식 시간에 남은 잔반을 모으고, 정해진 곳에 버리는 것은 교사가 하며 영아 스스로 정리할 시 더 어지럽혀져 교사가 청소를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였다. 신 교사 역시 대소변 실수를 하였을 때 옷을 벗고, 몸을 씻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교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영아들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의 기본생활습관은 직접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온 목수건, 양말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이들이 무슨 장갑을 착용하고 등원 하였는지 목에 두르고 오는 목 손수건은 무슨 캐릭터, 색을 하고 왔는지 기억해 줘야 해요. 놀이하다가 답답하면 손수건을 풀고 싶다면 매듭을 풀기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오고, 손수건 가방에 넣으라고 하면 다른 친구 가방에 넣고... 애들이 자신의 물건을 넣었을 경우 맞게 넣었는지 확

인해줘야 하고, 다른 친구의 가방에 넣었을 때는 영아의 가방에 다시 넣어 줘요.

(회교사 면담, 2015. 12. 15)

배변훈련을 늦게 시작하는 영아들이 있어요. 늦게 시작하여 지금 훈련 중인데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것부터 가서 바지 내리고 올려주고 변기에 앉을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어요. 아이에게 해보라고 하면 바지에 손을 대었다가 한번 힘주고 “안돼요”라고 이야기하다 시간이 늦어지면 그냥 바지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교사 면담, 2015. 12. 29)

놀잇감을 정리하는 시간을 미리 알려준 뒤 자유놀이시간이 끝이 나며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아들이 놀이하면서 꺼낸 놀잇감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음식, 접시, 벽돌블록, 퍼즐들이 다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 접시, 벽돌블록, 퍼즐 정리를 잘 하던 영아들도 정리를 할 때 헛갈려하고, 힘들어해요. 그럴때는 교사가 빠르게 한 영역의 놀잇감을 정리해주고, 분류하는 놀잇감의 양을 적게 해주면 영아들이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한교사 면담, 2016. 1. 7)

회 교사는 영아들의 개인소지품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기억하고, 정리하는 것을 교사가 정리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영아들이 자신의 물건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방에 넣었을 시 다른 친구의 가방에 넣을 때가 있어 교사가 영아의 소지품을 맞게 넣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였다. 확인이 이루어진 후 다른 친구의 가방에 넣었을 시 교사가 다시 정리해 준다고 하였다.

이 교사는 대소변훈련을 늦게 시작하는 영아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교사가 대신 수행해 준다고 하였다. 교사가 영아에게 대소변의 준비과정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시간

이 오래 걸려 영아가 실수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한 교사 역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교실의 다양한 영역의 놀잇감이 섞여 있을 때는 영아들이 인지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워하여 교사가 대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놀이를 하다가 종종 영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놀이하다가 중간 중간 “화장실에 가서 쉬 한번 하고 오자”라고 이야기 하며 영아들을 화장실에 데려가서 소변보는 것을 도와줘요. 그리고 가끔 놀이를 하다가 바지에 대소변 실수를 했을 때 영아들이 스스로 옷을 갈아입거나, 뒤처리를 하지 못해 대소변 실수를 했을 때 씻겨 주며 제가 다 해줘야 해요.

(고교사 면담, 2016. 1. 9)

고 교사는 영아들이 몰입하여 자유놀이를 할 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놀이 도중에 대소변 실수를 한다고 하였다. 영아들이 대소변 실수를 하고 난 후 옷을 벗고, 몸을 씻는 것,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교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고교사가 미술놀이시간 영아의 옷 입기와 사용한 미술도구를 직접 정리하는 역할의 사례이다.

미술활동 시간 솔방울에 물감을 묻혀 도장 찍기를 하는 상황이다.

고교사: (미술놀이 가운을 영아에게 보여주며) 옷에 물감이 묻을 수 있으니깐 가운입고 솔방울 도장 찍기 해볼까?

규원: (웃으며)네.

고교사: (규원에게 미술놀이 가운을 입혀주고, 등 뒤에 단추를 채워준다.)

규원: (솔방울에 물감을 묻히고 종이에 찍다가 손에 묻는다.)그만할래요.

고교사: 규원이 솔방울 도장 찍기 그만 하고 싶어? 그럼 옷을 벗는 거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규원이 손 씻어볼까?

규원: (고개를 끄덕인다) [중략]

교사는 물감이 묻은 솔방울을 봉지에 담아 휴지에 버리고, 물티슈로 책상을 닦은뒤 물감통을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닦아 창가에 놓는다.

(관찰, 2015. 1. 15)

물감을 활용한 미술놀이 시간 교사는 영아가 활동하기 전 옷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미술용 가운을 입혀준다. 영아가 물감을 묻혀 솔방울로 도장 찍기를 하다가 손에 물감이 묻자 활동을 그만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교사는 영아가 입고 있는 미술용 가운을 벗는 것을 도와준다. 교사는 영아가 손에 묻은 물감을 손을 씻어 볼 수 있도록 권유하고, 영아가 미술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미술활동에 사용한 솔방울, 물감, 물감통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영아반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에서 영아들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직접 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자

교사들은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칭찬과 격려를 영아에게 하였을 때 기본생활습관의 지도를 즐겁게 받아드리고, 행동의 강화가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시도할 때 작은 행동의 부분도 과장되게 칭찬하며, 영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이며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희반에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교실의 로션이 놓아진 자리에 서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아

가 로션을 바르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로션이 있는 곳에 서있는 것을 바로 “우리 지아는 세수하고 로션을 바를 려고 하는 구나. 우리 지아가 로션 바르면 예쁜 얼굴로 변신 하겠네”라고 이야기 하자 로션을 꺼내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이교사 면담, 2015. 12. 29)

점심시간이었어요. 야채와 채소를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 영아가 있는데 그날도 밥과 고기로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친구 바로 앞에 한 영아가 포크에 상추를 찌른 다음 고기를 찌어 함께 먹고 있어 “OO는 고기랑 야채도 먹어 번개맨 아저씨 처럼 키도 키고, 위험에 빠진 친구들도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야채를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 영아가 번개맨을 제일 좋아해서 번개맨 아저씨 이야기를 한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손으로 먹기는 하였지만 아주 작은 상추를 먹는 거예요. 바로 번개맨 아저씨 이야기 하면서 칭찬을 제일 많이 해 주었어요.

(회교사 면담, 2016. 1. 16)

교사들은 칭찬을 통하여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 교사와 회 교사의 영아들처럼 교사의 칭찬을 통하여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영아들은 칭찬을 하면 하기 싫거나,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잘하던 행동도 더 잘 할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말 한마디로 아이들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칭찬과 격려를 해 줄려고 하고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노력해요.

(유교사 면담, 2016. 1. 20)

영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사가 격려하고, 옆에서 지지를 해주니깐 영아들도 자신감을 얻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칭찬이 제

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 좋은 약을 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아이에게 인사 잘하는 대장, 야채를 잘 먹는 아이에게는 골고루 대장, 친구에게 놀잇감을 나누어 주는 아이에게는 놀잇감 천사 대장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어느 날 항상 아침에 등원하면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침에 등원하여 선생님과 “안녕하세요”인사를 나누고 “인사대장 우리 효준이 너무 멋지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바로 뒤에 등원할 때 마다 인사를 안 하고 엄마의 다리에 매달려 인사를 하지 않는 친구가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만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여 정말 많이 칭찬을 해 주었어요.

(나교사 면담, 2016. 1. 22)

또한 유 교사는 영아들에게 칭찬을 해주면 영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시킨다고 하였다. 유 교사는 이러한 교사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영아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교사로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으며 교사가 영아에게 칭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 교사는 영아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인해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여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은 영아들이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칭찬을 해줄 수 있도록 안내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내를 통하여 영아들의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서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참여관찰을 통하여 고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알람장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행동 한 행동에 대해 가정에서 칭찬을 해달라고 스마트폰 알람장을 작성한 사례이다.

오늘 지나가 기분 좋게 오전 하루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하루일과를 보냈는데 “쉬야 마려워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과 화장실에 갔을 때 싫다는 의사 표현 없이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았어요. 소변을 보고 난 뒤 변기에서 내려와 변기버튼을 눌러보기도 하고, 스스로 팬티를 올려보기도 하였어요. 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난 것에 대해 선생님이 “지나 변기에 앉아서 쉬야 했네. 지나 너무 잘했어. 친구들한테 자랑도하고, 할머니 선생님, 엄마 아빠한테도 칭찬해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가정에서도 원에서 지나가 변기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 지나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화장실에서 배변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하원 시 뵙겠습니다.

(스마트 알림장 관찰, 2015. 11. 14)

오늘 지나는 하루일과를 지내면서 전이시간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어요. 실수도 많이 줄고, 미술영역에서 점토로 음식을 만들어 역할영역 그릇에 담아 놀이하고 있는 중에 놀이를 멈추고 선생님에게 와서 “쉬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왔어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 “쉬야 하고 왔어요”라고 이야기 하여 칭찬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오늘 지나가 실수 없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해 칭찬해주시고, 많이 안아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지나가 더욱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이 즐거워 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알림장 관찰, 2015. 12. 16)

위의 사례는 만 2세 영아가 후반기에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속옷을 입고 화장실에서 교사와 함께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훈련을 점차적으로 시도하여 성공하는 사례이다. 다른 영아들은 대부분 1학기에 배변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지나는 2학기 후반에 배변훈련이 시작되어 부모님이 다른 영아에 비해 늦게 시작하여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였다. 본격적으로 11월부터 배변훈련이 이루어져 그동안 대소변 실수가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성공하여 영아가 성공한 배변훈련의 상황을 낮잠시간에 스마트 알림장을

통하여 부모에게 전하여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배변훈련을 성공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여 칭찬해달라고 안내하며 영아의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영아의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는 영아에게 칭찬과 격려, 부모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통하여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하고 있었다.

2.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동료교사와의 다른 지도방식,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 영아들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1) 동료교사와의 다른 지도방식

영아반은 교수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팀티칭으로 반을 운영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반면에 한 교실에서 두 명 이상의 교사가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교육을 지도를 하며 서로 다른 교육관과 지도방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었다. 다음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동료교사와 교육관과 지도방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메이트 교사와 일년을 함께 지내야하기 때문에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메이트 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제 동

료교사도 나를 보고 이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잘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교사 면담, 2015. 11. 30)

동료교사와 함께 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생활습관의 지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한번은 제가 손 씻기, 양치지도를 하면 그 다음 주에는 동료교사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아이들이 세수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시간을 주고 난 뒤 제가 한번 더 깨끗하게 시켜줘요. 근데 제 메이트 교사는 아이가 혼자서 시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교사가 도움을 주며 세수하기가 이루어져요.

(유교사 면담, 2016. 1. 13)

여 교사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상대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시 동료교사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동료교사의 지도방식이 수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나서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유 교사는 팀티칭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시 같은 지도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유 교사는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며 영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교사와 함께 반을 운영하고 있는 동료교사는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지도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동일한 지도방법에 대해 팀티칭을 하는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의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도 있었다.

저는 경력이 많은 선생님과 함께 반을 운영해 가고 있어요. 어느 날은 아

이들의 놀잇감 정리 시 교사의 역할, 양치도 할 때 역할, 자유놀이시간의 역할등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생활습관의 교육방법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치도 보게 되었어요.

(나교사 면담, 2015. 12. 5)

자유놀이시간이 끝나기 전 전 아이들에게 미리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뒤 조금 지나서 모두 제자리 노래를 틀었어요. 아이들이 놀이하다가 놀이를 멈추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고 제 메이트 선생님도 아이들과 정리를 하었어요. 어느 정도 교실의 놀잇감이 정리가 되고 쌓기영역의 벽돌블록만 남아있었는데 제 메이트 선생님이 아이들을 몇몇을 부른 뒤 손을 씻으러 2-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교실에 벽돌블록을 정리 하던 아이들은 정리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니 따라가니깐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벽돌블록 정리가 안 끝났는데... 저는 활동이든, 정리를 하든 끝까지 해서 다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메이트 선생님은 놀잇감을 끝까지 정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교사 면담, 2016. 2. 2)

나 교사는 경력이 많은 교사와 팀티칭을 하고 있다. 경력교사가 자신의 기본생활습관의 지도방법이 올바른 지도방법이라고 주장 하였을 때 나 교사는 경력교사의 지도방법이 강요처럼 느껴지게 된다고 하였다. 나 교사는 자신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경력교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 교사 역시 메이트 교사와 다른 교육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유놀이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영아들과 놀잇감을 정리할 때 벽돌블록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몇몇의 영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이동하자 다른

영아들도 화장실을 따라가며 완전한 놀잇감 정리가 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하 교사는 다른 지도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 고교사와 고교사의 메이트가 영아들의 물양치 기본생활지도 시 서로 다른 지도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새반 영아들이 오전간식을 먹은 뒤 교실로 이동하여 물 양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고교사:(화장실 문 앞에 서 있으며)자! 양치컵 꺼내서 물 양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놀이 할 수 있어요.

(영아들이 한번에 5명이 뛰어와 양치컵 문을 열며 서로 몸을 밀치며 컵을 꺼내자 김 교사가 다가온다)

김교사:(친구를 밀치는 영아들을 보며) 친구 밀지 말고 천천히 꺼내자. 자. 다시 선생님 앞에 한줄 기차하고 한명씩 컵 꺼내서 오물오물 튼 하고 오세요.

(영아들이 김교사 앞에 한줄기차를 하자 고교사는 언어영역으로 가서 그림책을 보는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본다)

김교사: 연희 컵 꺼내서 출발

오전간식을 먹은 뒤 고 교사는 영아들의 물 양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김 교사와 다른 지도방법으로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같이 만 2세 영아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반을 운영하며 다른 교육관과 지도방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사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며 기본생활습관의 교육관과 지도방법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무관심한 부모

앞서 영아들의 달라진 기본생활습관에 대해 부모들이 교사에게 신뢰성을 보여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영아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일과 중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부모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정과 연계되지 않을 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힘들 때가있어요. 편식이 심한 영아가 가정에서 밥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빵이나 김, 소세지 반찬 등으로 영아가 좋아하는 메뉴로만 식사를 하고 등원시키면서 어린이집에서는 “김치 먹게 해주세요, 야채 먹게 해 주세요”라고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단으로만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야채를 먹을 수 있겠어요. 저라도 어린이집에서 안 먹고 집 가서 마음대로 먹을꺼예요.

(하교사 면담, 2015. 11. 22)

영아들이 신발을 신을 때 2학기 말이 되는데도 혼자 신발을 신는 것을 어려워하는 영아들이 있어요. 그런 영아들의 신발을 보면 신발이 너무 딱 맞아서 혼자 발을 넣을 수 없는 신발이거나, 지퍼를 이용하여 신어야 하는 신발들이예요. 그런 신발들은 영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도 영아들이 혼자 절대 신을 수 없는 신발들이예요. 하원할 때 부모님한테 지퍼 올리는 신발보다는 영아들이 혼자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보내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매일 혼자서 신을 수 없는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며 나를 무시하나? 했어요.

(회교사 면담, 2015. 12. 17)

하 교사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는 편식하지 않고 야채, 김치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원하지만 가정에서는 영아가 좋아하는 식

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아가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였다.

희 교사는 영아가 혼자서 신기 어려운 신발을 신고 등원하여 외부로 이동할 때 교사의 도움으로 신발을 신어야 했다. 하원시간에 부모에게 혼자서 신을 수 있는 편한 신발을 신고 등원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지만 혼자 신을 수 없는 신발을 계속 신고 등원하자 부모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무관심과 교사로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저희반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정말 가만히 앉아서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거의 눕다시피 하고 팔을 바닥에 대고 교사가 먹여줘야 해요. 매일 알림장과 하원시에 영아의 식습관태도에 대해 말하면 부모님 반응이 “아. 그래요” 이 정도예요. 한번은 “어머님 집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게 하고 계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앉아서 먹자”라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니깐 많이 먹여주는 편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이야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생활습관 이라는 것 자체가 교사가 혼자 해서 되는 것이라 교사와 가정과 함께 협력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내가 지도 한건 도대체 뭘까?” 회의감도 들기도 했어요.

(송교사 면담, 2015. 12. 10)

기본생활습관이라는 것은 가정과 함께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아무리 선생님이 롤모델이 되어서 아이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지만 가정에서 같이 해주지 않는다면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교사가 지도했던 모든 부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향교사 면담, 2016. 1. 17)

송 교사는 영아의 식습관의 태도를 맞벌이 부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서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인해 화가 나며 교사로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였다. 향 교사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역할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연계되어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가 이야기 하고 있다.

다음은 고교사가 하원시간 부모에게 배변훈련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 집과 가정과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다.

월요일 하원시간 지원이 어머니가 오셔서 교사와 배변훈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고교사: 어머니 지원이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실수 없이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쉬할러 갈래요”라고 이야기하며 소변을 잘 보았는데 오늘은 소변 실수를 많이 하였어요.

지원엄마: 아. 그래요.

고교사: (웃으면서) 오늘 역할영역에서 친구와 함께 생일축하 놀이를 하고 있는데 매트위에 앉아서 그냥 소변을 보았어요.

지원엄마: 매트까지 적었겠어요.

고교사: 네. 매트도 젖기는 하였는데 세탁해서 괜찮아요. 혹시 지원이 주말에 가정에서 실수 많이 하였나요?

지원엄마: (입을 손으로 가리며 웃으며) 아. 주말에 나가는 곳이 많아서 기저귀 착용을 많이 했어요. 기저귀에 소변을 보아서 그랬나봐요.

고교사: 아. 주말에 기저귀 착용을 해서 놀이하는 도중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였나봐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지원이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기저귀 벗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지원엄마: 네. 선생님

(관찰, 2015. 12. 16)

위의 사례는 늦게 배변훈련을 하고 있는 영아가 평일에는 배변훈련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주말 동안 가정에서 기저귀 착용을 하여 월요일 등 원 후 어린이집에서 배변훈련 실수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하는 사례이다.

고교사와 부모와의 일관적이지 않은 지도방법과 부모의 배변훈련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가정에서는 기저귀 착용을 하고 기관에서 반복적인 배변훈련으로 영아가 혼란을 겪으며 배변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교사는 주말을 지내고 등원하여 월요일에는 배변훈련의 과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에 대해 안내하며, 부모에게 어린이집과 가정에서의 일관적인 양육태도와 배변훈련의 중요성과 관심을 지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와 부모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교사들은 화나는 감정, 회의감, 무시, 반복적인 지도의 안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3) 영아들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

교사들은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영아가 기본생활습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울기, 던지기, 소리 지르기와 같은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을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얼마나 아빠가 매번 옷을 입는 것을 도와준다거나, 밥을 먹여주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와서 바지를 입다가 잘 입어지지 않으면 “나 못해, 못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옆에서 “할 수 있어”라고 격려를 해주면 “싫어. 안해”라고 바지를 입다가 속옷만 입은 채로 놀이를 하러가요. 그때는 쫓아가서 다시 “바지 입어보자?”라고 이야기 하며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안 입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한 영아하고만 있으면 다른 영역에서는 아이들 간의 갈등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교사 면담, 2015. 12. 22)

어느날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한줄기차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 하였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두 명의 영아가 달려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동시에 두명이 “내가 먼저 왔어. 내 자리야”라고 이야기 하며 밀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둘이 같이 손잡고 한줄기차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였는데 한명의 영아가 싫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밟다면서 저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순간 아이한테 맞으니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장실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감정이 확 올라오기도 하였어요.

(송교사 면담, 2016. 1. 8)

교사들은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면서 공감과 칭찬을 통하여 행동을 격려하였다. 교사들은 만 2세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의 미흡한 자조기술과, 타인조망능력의 부족, 그리고 강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소리 지르기, 때리기 등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한 영아와 긴 시간 동안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질 시 교실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다른 영아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교실의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점심시간에 도라지 배무침이 나온 날이 있었어요. 배가 맛있으니깐 반찬 중에 배만 골라먹고 도라지만 남겨 놓은거예요. 그래서 도라지도 먹어보려고 이야기 하며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고, 도라지 먹으면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커진다고 이야기 하며 포크로 찌어서 줬어요. 포크로 찌운걸 보고 “안 먹어, 맛이 없어, 싫어” 라고 이야기 하며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옆에 앉은 한 영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영아를 보고 따라하면서 “나도 안 먹어” 라고 고개를 획 돌리는 거예요. 한번 더 권유를 하였는데 식판도 손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식판을 밀자 국물도 쏟아지고, 반찬도 책상위에 떨어지니 저도 화가 나고, “도라지 안 먹으면 형님반 갈 꺼예요”라고 아이한테 이야기 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도 화가 났어요.

(나교사 면담, 2015. 1. 28)

낮잠 자는 시간에 교사들은 모든 서류작업이나 수업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영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뒤척거리고, 발을 바닥에 탁탁 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깨우고 싶어서, 저는 그래도 잠이 올 수 있도록 옆에서 토닥여주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야 오전에 놀이했던 몸이 다시 튼튼해져서 오후에 기분 좋게 친구들과 놀이하고, 실외활동도 나가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낮잠을 자지 않으면 오후에 놀이하다가 피곤하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몸이 피곤하여 언어 영역에 누워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는데 눈도 감지도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이며 잠을 안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자”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소리 지르며 우는 바람에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이 깨기 시작하니 알림장도 쓰는 것도 늦어지고, 수업준비가 되지 않으니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유교사 면담, 2016. 2. 2)

나 교사는 점심시간이 영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영아의 편식을 예방하고, 고른 영양섭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습관 지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가 지속적으로 권유하자 영아는 “싫어, 안 먹어” 라고 이야기 하며 식판을 밀어버리는 감정표현을 통해 식사를 거부하자 나교사는 식습관 지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유 교사는 영아가 오전 중에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낮잠시간에 영아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후자유놀이 시간에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는 낮잠시간을 이용하여 영아의 하루 일과에 대한 알림장 작성, 오후 수업준비와 서류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아는 낮잠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며 낮잠시간에 휴식하는 것에 대한 저항행

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낮잠을 자고 있던 다른 영아들이 잠에서 깨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거부행동으로 인하여 교사는 평정심을 잃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어려움과 영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다음사례는 고교사가 영아에게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며 느끼는 어려운 감정을 팀티칭교사에게 이야기 하는 사례이다.

월요일 낮잠시간 고교사와 같이 반 운영을 하고 있는 김교사와 함께 오전의 화장실지도의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고교사: 선생님 아까 아침에 재인이가 화장실에서 물양치 하면서 컵에 물을 담아 화장실 바닥에 뿌렸어요.

김교사: 어머. 그래서 애들 양말 다 젖었구나.

고교사: (웃으면서) 네.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깐 재인이가 양치컵에 물을 받아 바닥에 뿌리는 것을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김교사: 당연히 하나지. 계속 그러고, 바깥놀이 나가야 되는데 애들 양말 다 갈아 신어야하고...

고교사: 네. 그래서 큰 목소리 냈어요. 갑자기 제가 큰 목소리로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니깐 재인이가 소리 지르면서 “싫어, 할 거야” 라고 이야기 하며 양치컵에 물을 받아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큰 목소리 냈어요.

김교사: 그래도 다음부터는 하나더라도 조금만 참았다가 이야기해요. 나도 가끔씩 애들이랑 있으면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계속 하면 화날 때도 있어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서 내 화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한 3초 참았다가 이야기해요.

고교사: 저도 그래봐야겠어요. 근데 참 마음이.....어렵고 무겁고 미안해요.

(관찰, 2016. 2. 12)

위의 사례는 만 2세를 담당하고 있는 고교사가 오전에 영아들의 화장실 지도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 영아가 양치컵에 물을 담아 바닥

에 뿌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사는 영아에게 큰 목소리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하자 영아는 컵에 물을 담고 바닥에 뿌리며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동한 것을 텀티칭을 하는 선배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례이다.

고 교사는 영아가 부정적인 행동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영아에게 큰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영아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고 교사의 선배교사는 자신의 경험한 상황과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 교사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면서 영아들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함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의 역할은 어떠한지 하며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내용을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역할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시범자, 영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자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사들의 역할은 하루일과 속에서 시간과 공간, 활동에 상관없이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들은 행동을 통해 직접적인 가르침이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효율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란희(2016)는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하는 교사는 유아에게

지시와 명령으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생활습관을 먼저 실천함으로써 유아들이 모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양말신기, 손 씻기, 신발 신기 등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행동을 어려워 할 때 교사는 영아에게 직접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영아에게 바람직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교사 스스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영아들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장갑수(2015)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교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휴지 버리기, 손 씻기, 신발신기, 양말신기 등의 행동을 기본생활습관의 직접적인 순서와 방향에 맞춰 지도하고 있었다. 이는 기본생활습관과 관련한 생활그림책을 선정하여 그림책 속 주인공이 옷 입기, 신발신기 등의 과정을 모방하며 영아들이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강미영(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영아는 모방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들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박은실(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본생활습관 지도에서의 핵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사임을 깨달아 영아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와 행동을 인식하며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강력하고 유능하며 권위 있는 본 보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영아들이 하루일과를 지내는 동안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교사가 영아의 행동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대리자의 역할은 영아들이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급 간식시간, 옷 입고 벗기, 배변훈련, 놀잇감 정리하기 등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영아교사는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역할에 있어 유아교사와 달리 역할 수행에 관한 차이가 있다(심영희, 201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결과이다.

이는 박세진(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만 2세의 발달특성과 연관이 있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민경(2008)의 연구에서 만 2세 영아의 발달단계 상 정확한 세분화와 움직임이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와 이영석(1995)의 연구에서 만 2세 영아들은 언어적 상황이나 장소에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 소통기술이 숙달되지 않아 생활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와 동일한 견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교사의 대리자의 역할을 통해 영아의 발달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적절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지도를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은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칭찬은 인정받고 권장할 어떤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자극의 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시키는 언어적 보상이다(조영화, 2004).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을 지도과정에서 영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였을 때 기본생활습관을 즐겁게 받아드리고, 행동의 강화가 나타났다. 이는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사가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동기를 유발시키는 도움을 주었다는 강경아(201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더불어 만 2세 영아교사들은 영아들이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시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을 시 바로 칭찬과 격려를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긍정적인 행동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는 김란희(2016)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영아교사는 영아가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하였을 시 칭찬과 격려를 할 때는 언어적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영아가 배변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토닥임, 웃음 등의 비언어적인 격려는 영아들의 긍정적인 배변행동을 촉진 시킨다는 고경옥(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결과이다.

2)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은 동료교사와의 다른 지도방식,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 영아들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다른 지도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기본생활 지도과정속에서 생겼으며, 상대교사의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시 동료교사가 마음의 상처가 생기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서로의 다른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권현서(2009)의 연구에서 동료교사 간의 다른 교육관의 타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타협 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한 교사가 팀 교사에게 양보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되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자신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을 저경력 교사에게 따라 오도록 강요하여 저경력 교사는 자신의 지도방법에 자신감을 잃게 되고,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 경력교사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는 김효정(2011)의 연구에서 팀티칭은 기본적으로 두 교사의 장점을 살

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팀티칭을 통해 교사는 총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더불어 경력이 많은 교사는 저경력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방법을 따라오도록 강요하며 저경력 교사는 점차 자신감이 상실되며 영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시 동료교사의 눈치를 보고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는 한 학급 내에 여러 명의 교사가 존재할 경우 교사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운영 목적이 경력 교사의 힘이 우위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설혜정, 1999; 이명순, 2002).

교사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상대의 교사의 교육관과 지도방법에 대해 표현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는 권현서(2009)의 연구결과 처럼 교사 간 타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타협 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한 교사가 팀 교사에게 양보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같이 만 2세 영아교사들은 기본생활지도과정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반을 운영하며 동료교사와 다른 지도방식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영아에게 일관성 있는 기본생활습관의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며 동료교사와의 교육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존중, 타협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부모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무관심으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부모들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영아와 함께 하는 시간 만큼은 영아가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는 허용적인 부모가 되며 영아의 배변훈련, 신발신기, 식습관 등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부모들의 기본생활습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시, 화, 회의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영아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탁정화, 황해익(2012) 연구결과와 임경입, 이숙희(2009)의 무관심한 부모의 태도가 교사에게 영아들과의 보육활동에 있어 위축감과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더불어 신수진(2015)의 연구와 같이 부모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결과이다.

최근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적절한 활용은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효과를 촉진시키며, 부모들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고안되고 있다는 김숙희(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부모가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과 이해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들의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의 인식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들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에 대한 교사의 감정수용의 어려움을 나타나고 있었다.

영아들은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급·간식시간에 채소 먹지를 먹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몸을 움직이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동, 양말은 신지 않으려는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였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영아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며, 결국 교사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한 김란희(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교사들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을 수

용하는 것은 교실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행동지도에서의 어려움은 지도 자체에서 오는 것 뿐 아니라 지도를 어렵게 하는 주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문송이(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영아교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키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교사 정서프로그램과, 하루 8시간 이상씩 종일 보육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 역할과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2세 영아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의 영아교사의 역할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의 시범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역할은 하루일과 속에서 시간, 공간, 활동에 상관없이 영아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교사들은 영아가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영아들이 하루일과를 보내며 급 간식시간, 옷 입고 벗기, 배변훈련, 놀잇감 정리하기 등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교사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대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아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영아의 긍정적인 행동의 촉진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영아들이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시도하거나, 행동하였을 시 바로 칭찬과 격려

를 하여 영아의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의 행동을 강화하였다.

둘째,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어려움은 동료교사와 다른 지도방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영아교사는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함께 반을 운영하는 고경력 교사가 저경력 교사에게 자신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의 동일시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며, 동료교사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동료교사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방법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영아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즉,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영아와 함께 하는 시간만큼은 허용적인 부모가 되며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영아들의 울기, 소리 지르기, 때리기 등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이 나타났다. 영아교사는 이러한 영아의 저항행동과 거부행동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한 교사의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역할 및 어려움을 심층적인 이해로 도모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만 2세 영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 및 문화적인 특성 등 그 대표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2세 영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연구를 위하여 0세, 1세의 영아교사를 포함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의 기본생활습관 2학기의 지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영아의 발달 특성상 1학기와 2학기의 발달의 차이가 크며 그에 따른 교사의 지도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하여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후속연구에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영아교사의 역할과 어려움을 관찰하며 변화를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미, 구광현, 백경숙(2005). **아동발달**. 서울: 대광사.
- 강경아 (2011). 반석어린이집 만 3세반 교사들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경희, 전홍주(2012). 어린이집 교사의 식시지도의 방법과 지도과정의 어려움. **유아교육학논집**, 16(1), 229-303.
- 강미영 (2016). 생활그림책 읽기를 통한 만 2세반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과정 탐구.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석, 황윤세 (2004). 유치원의 기본생활교육 내용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통합화 방안 탐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9), 39-67.
- 계영애, 강정원 (2001). 유아 인성 교육을 위한 인성적 덕목과 교수 전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연구. **한국영유아교육학회지**, 5(1), 55-75.
- 고경옥 (2015). 영아 배변학습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육교사 역할의 의미. **충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복희 (2008.)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효과: 만 2세아를 중심으로.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김연수 공저(2014). **영아발달**. 서울: 학지사.
- 구자미 (2016). 개사한 노래 부르기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현서 (2009). 정답입-정답입 팀티칭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갈등과 불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2000).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그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229-252.
- 김란희 (2016).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교사의 지도방법과 지도과정에서의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 변혜원, 김길숙 (2011).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부모 평정척도 개발 연구. **한국아동학회**, 39(2), 87-104
- 김민정 (2007). 그림책을 통한 기본생활 습관 활동이 만4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희 (2005).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목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영 (2009). 동화를 통한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변화에 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4(1), 23-46

- 김정연 (1996).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및 지도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아 (2007). 그림책을 활용한 만 2세 영아의 몸짓 언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어린이집에서 영아보육이 지니는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치영, 임상도 (2014). 유아교사의 권위 상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권위 정당화 방안 탐색. **아동교육**, 23(4), 25-44.
- 김혜경 (2014). 텃밭 가꾸기가 만 2세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또래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인 (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정 (2011). 팀티칭 경험이 어린이집 경력교사에게 주는 의미.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수래 (2011).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요인. 안양대학교 경영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송이 (2008). 유치원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아행동 지도와 교사의 어려움.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희 (2015). 노래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나래 (2016). 만 0세 영아반 교사의 어려움과 기대 및 보람에 관한 이야기. 성신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남희 (2013). 만 1세 영아반 교사로 살아가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도연심 (2005). 아동발달. 서울:동문사.
- 박세진 (2012). 만 2세반 영아들의 또래 간 갈등상황에서의 교사 역할 지원을

- 위한 실험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아영 (2014). 영아반 교사들의 식습관 지도 행동 변화를 위한 실험연구: 만 2세 영아반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 (2000). 유아의 발달수준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실 (2013). 영아교사 전문성발달 수준 내용의 중요도와 실시도 인식. 강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례 (2000).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의 지도실태. 목포대학교 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빈, 김은심, 유선희(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병형영유아교육학회 학술저널**. 4(2). 65-87
- 박정숙 (2005). 어머니의 기본생활에 대한 유아의 지각과 기본생활습관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옥 (2009). 교수방법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찬옥 외(2001). **유아사회교육**. 서울: 정민사.
- 박화운 (2000). 유아의 발달 수준과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형선 (2009).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형성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혜 (2005). 2세 영아의 구성놀이에 관한 사례연구 :블록활동과 그리기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경 (2004). 만2세아 기본생활습관 실태에 대한 연구 : 부모와 교사의 반응 비교. 세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김경혜 (1999). **영아보육론**. 양서원.

- 송미영 (2014).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혜진 (2007). 만2세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및 놀이성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2015).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보람과 어려움.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숙, 유연옥 (2003). 철학적 탐구 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 269-296.
- 심성경, 류경희(2013). 어린이집 만 2세 학급 영아의 하루일과에 대한 연구. **육아지원연구**. 8(1), 211-240)
- 심영희 (2012).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역할수행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 성소영(2013).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역할수행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차이. **한국아동교육학회**, 22(2), 121-138
- 안나영 (2012).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신체적 발육발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소남 (2009). 영아보육교사의 전문가적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 (1999). 유치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16(1), 22-40.
- 여인우 (2014). 영아 교사의 정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 요구에 관한 이야기.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란 (2013). 만2세 영아반의 영아-영아와 영아-교사의 언어 상호작용 변화과정.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채선 (2004). 유치원 일과에서 기본생활 교육의 의미. **한국영유아교원교육**

학회, 8(3), 81-108

오효연 (2016). 교사와 영아 간의 신체접촉놀이가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은경, 이미나 (2012).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노래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2(4), 229-247.

이귀옥·이미리 (2013). “기본생활습관의 발달과정 탐색연구”.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187-205.

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전선옥 (2000). 영유아교육과정. 공동체

이기숙, 장영희, 이윤경, 정미라, 심성경, 손순복, 김영아 (2015). 영아발달. 파주:양서원

이명순 (2002). 유아 교사간 협력의 가능성 탐색. 영유아교육연구, 5(1), 5-21

이명순,곽승주, 전영희(2010). 영아보육과정. 파주:정민사.

이명조 (2005). 영유아 발달과 교육. 파주:양서원

이민경 (2008). 신체활동이 영아의 운동능력 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보람 (2013).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순 (2015). 만2세 영아(즐거운반)의 숲 체험활동에 관한 실행연구.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연 (2015). 어린이집 영아반 팀티칭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탐색.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현 (2015). 어린이집 영아반 팀티칭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탐색.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 (2016). 영아교사가 경험하는 자존감의 실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희, 강병재 (2002).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유아의 발달 수준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7(2), 243-258.
- 이순천 (2012). 유치원에서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유아의 일상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과정논문.
- 이영미 (2007). 팀티칭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1995). 한국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 확인 연구 - 0에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1(1), 1-69.
- 이영석 (1998). 영아발달 수준확인연구: 어린이집 영아반교사의 관찰평정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1). 263-302
- 이옥임 (2006). 2세 영아의 자율성 형성과정 탐색.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우정 (2016). 반복적인 생활그림책 읽기가 만 2세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1). 유치원 기본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린이육영회 연구보고서.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2003). **유아교사론**. 서울:양서원.
- 이인숙 (2001). 맞벌이 부부의 영아보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은 (2004). 2세 영아의 실외놀이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1997).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차숙 (2004). **유아 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서울:학지사

- 임경임, 이숙희 (2009).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보육교사의 직무효능감과 교사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1(2), 585-598
- 장영희 (2007). **영아교육과정**. 서울:양서원.
- 전지혜(2007). 영아발달 수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 정확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금자 (2001). 유아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교수방법. **인문예술논총**, 22(1), 157-172.
- 정옥분 (2002). **유아교육연구방법**. 서울:학지사
- 정은옥 (2012). 유치원교사들의 교육대학원 경험에 관한 담론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정여 (2010). 유아의 기본생활습관형성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순 (2014). 유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변천과정 및 연구동향 분석. 중부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2016).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2006). **아동발달**. 서울:교육과학사.
- 조성연, 강제희(2007). 영아교사의 보육 실제 직무 수행실태와 인식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3), 5-22.
- 조순옥, 이경화, 배인자, 이정숙, 김정원, 민혜영(2002). **유아사회교육**. 서울 :창지사.
- 조영화 (2004). 또래간 칭찬하기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진 (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1(2), 237-262.

- 최기영 (2008). **유아사회교육**. 파주: 교문사.
- 최미현, 박명화, 박성미, 최양미, 김성신 (2000). **영유아 보육의 이해**. 서울:창지사.
- 최석란 (2007).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 보육교사의 역할. **사회과학논총**, 14, 97-116.
- 최혜순 (2007). **유아사회교육**. 서울:동문사
- 탁정화, 황해익 (2012). 영아교사의 어려움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73-103.
- 한선희 (2014). 어린이집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보육신념, 역할수행 인식 및 직무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숙 (2003). 경도장애유아 통합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 (2014). 영아를 위한 신체접촉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은주 (2011). 기본생활 교육에 대한 영·유아 교사의 인식 및 자기평가. 덕성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ackledge, D. & Hunt, B. (1985). Sociological interpretations of education. *London: Croom Helm.*
- Iran-Nejad, A. Mckeachie, W. J., & Berliner, D. C.(1990). The multi-source nature of learning ; an introduc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4), 509-517
- McNairy, M. R.(1989). Multiple staffing and teacher action: The effect of team teach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0, 1-15.

ABSTRACT

Teachers' Roles and Difficulties in instructing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Kim Dal-L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finding out teachers' roles in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difficulties they had during the instruction.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what are the teachers' roles in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Second, what are the difficulties which teachers face in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The study was aimed at finding out the role of teachers in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difficulties they had during the instruction. The study includ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teachers in charge of 2-year-old children in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n daily life of 2-year-old class in a workplace daycare center in Yeoui-do. The individual consulta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9, 2015 to February 19, 2016. Each subject had three sessions of interviews in total and the participant observation took place twice a month, from 8:30 in the morning till 6:30 in the evening focusing on their daily routine. The study was processed by studying teachers'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habit including dictation, notes, open coding, in-depth coding, and finding the topic.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in-depth interviews, open questionnaire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e

collected data was immediately dictated in order to maintain the situational context. Note-taking categorized the concepts and went through open coding and in-depth coding,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conceptualizing key contents of each topic.

The result of this study depending on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analysis on teachers' role in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showed that the teachers were mainly demonstrators who taught children with direct demonstration. Regardless of time, space and activities in daily routine, the teachers were individually teaching the children about basic life habits. Especially when children could not do the acting related to basic life habits, the teachers took the role of their substitutes for educating basic life habits. In different situations including lunch, clothes changing, toilet training, toy arrangement, and etc., the teachers became a director for educating the children's basic life habits. Lastly, the teachers used compliment and encouragement to encourage the children's positive behaviors in instruction on their basic life habits. The teachers immediately complimented and encouraged the children once they tried or did behaviors of basic life habits to reinforce desirable habits.

Second, the analysis on difficulties the teachers face in instruction on 2-year-old children's basic life habits show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caused by different instructional methods to their co-workers'. The teachers lost confidence due to the same instruction methods among the

highly experienced teachers and new teachers. To maintain amicable relationship, they did not expressed their opinions about their co-workers' instructional method. Moreover, the teachers had difficulties due to the parents indifferent to the education of basic life habits . In short, due to the busy work life, the parents would become very permissive during the time with their children and we could find out the reason that they did not consider the education of basic life habits important. Lastly, the teachers experienced the children's resistance and refusals expressed by their crying, shouting and striking during the education of basic life habits. The teachers had difficulties with emotional control once they were not able to accept the children's resistance and refusals.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는 김달이 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 역할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으로 모든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본생활습관 지도교육의 교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든 결과는 익명으로 보관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권경숙
연구자 : 김달이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

교 사 명 : _____

서명(sign) : _____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학위논문 준비 중에 있는 김달이 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본 연구에 참여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기본생활습관 지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교사의 역할과 어려움에 대한 연구로 일제반 교사와 영아들의 하루일과 중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지도과정을 참여관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찰한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사를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교육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든 결과는 익명으로 보관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들의 부모님께서서는 아래의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권경숙

연구자 : 김달이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

영아명 : _____

부모서명(sign): _____
